

# 기억해야 할 이가 있다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앞산 마루에서 흑염소페가 마을로 내려 오려 한다. 석양 무렵이 돼서 산보를 나선다. 오랜만이다. 노을은 내가 사는 잣나무골의 제일경이다. 골짜기를 웅위하듯 서 있는 잣나무들도 노을을 이기진 못 한다. 그래서인가. 이웃들도 골짜기 이름을 잣나무에, 제일경 만큼은 노을에 부여했다. 합당한 배분이다.

대체로 나의 산책시간은 그 무렵이다. 그 시간은 길 위에는 어떤 이도 없어 한적하다. 그새 땅거미도 스러지고 어스름속, 마을 입구에서 못 보던 입간판 하나를 만났다. '웬! 입간판?' 명예도로명이라한다. 궁금했다. 명예도로명이란 걸 보기는 처음이다. 독립운동가 정암 이종훈 선생의 삶을 기리기 위해 부여한 시의 첫 명예도로로 '정암로'다.

최근에 세워진 것 같다. 폭 1m, 높이 2.5m 남짓한 철제 입간판에 '정암로'라는 명예도로명과 정암선생의 초상화, 어록 등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 들어온 지 20여년 동안 추모나 기억을 남겨두지 않아 안타까웠다

니 이제사 입간판 하나 세워둔 모양이다. 해방된 지 8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세워진 것이라니, 참 야박스러운 기분이다.

"나라 잃은 백성이기에 내 나라를 찾는 길이라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바칠지라도 사양치 않으리라."

그의 어록, 초상화 속 눈빛은 형형했다. 현대 정암로는 곤지암과 여주를 잇는 광역로의 한 지선으로 대략 4km 남짓이다. 우리 만삼로길은 도시로 치면 골목길이나 마찬가지다. 입간판은 너무도 단촐해서 씁쓸했다. '허기사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는가'라며 핸드폰을 열어 나무위키에서 그의 행적을 찾아왔다. 그리고는 그의 업적, 일대기를 읽으면서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암 선생은 우리 마을 태생으로 3·1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대표 33인 중 1인이다. 당시 65세로 나이가 가장 많았으며 인사동 태화관에서 손병희 등과 독립선언서를 낭독,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정암은 14세부터 7, 8년을 유랑한 후 별군관이라는 무관이 되었다. 그리고 동학에 입도, 포교 활동을 펼쳤고 충북 보은 장터의 척왜양창의(斥倭洋僞義)운동에 참여하며, 교단의 중심인물로 성장했다. 충북 옥천, 괴산 전투에서 승리한 성과로 손병희가 이

끄는 호서동학군(북적)의 중군으로 선임돼 공주 우금치전투, 영동전투, 중곡전투 등에 참여했다. 동학에서는 해월 최시형이 교수형을 당하자 광희문 밖에서 시신을 수습, 원적산에 안장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교단에서는 해월이 어떻게 원적산에 묻히고 교단의 성지가 된 내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거기서 오랜 의문 하나가 풀리는 듯 했다. 해월 시신은 잣나무골의 뒷산인 원적산에 이장한 게 바로 정암이었을 듯 싶다. 이곳을 길지 혹은 명당이면서 시신을 탈취당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곳이란 걸 아는 이가 그가 아니면 없었을테니.

정암은 3·1만세운동 이후 투옥, 비밀 결사, 만주 등지에서 활동하다 국내에서의 무장투쟁을 위해 귀국, 천도교를 이끌었다. 만주의 무장세력과의 연결, 고려혁명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활동하던 중 1930년 고향에서 돌아와 76세를 일기로 운명했다. 완전히 어두워져서야 귀가하며 참담하고도 치열했던 한 독립운동가의 생애에 아꼈다. 빈약한 추모가 가슴높이를 맴도는 석양무렵 산책길, 한 선열과의 만남이 오래 기억되길 염원한다.

/건설부동산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 스트레스 DSR과 시장 침체



**기지수첩**  
**김대환**  
(건설부동산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봄 이사철 성수기인 3월 들어 추축하는 모양새다. 지난 1월과 2월 아파트 거래량이 반등하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것과는 딴 판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19일 기준)은 2575건을 기록하며 전월(1824건) 대비 41.2% (751건) 증가했다. 2월 거래량은 2263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신고 기한인 이달 말까지 약 열흘 이상 남아 있어 1월 거래량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시행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1월과 2월 아파트

거래량을 상승시킨 원인으로 분석된다.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규제 전에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을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진다. DSR을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려면 결국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므로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가 수월해지는 효과는 있지만 매수세를 크게 위축시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부동산 매매시장은 침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떨어지면서 1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스트레스 DSR이 집값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 것은 늘어나는 가계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자칫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대출한도가 줄어들자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갭투자를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전세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전세대출을 스트레스 DSR 항목에서 제외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에게 대출 한도 증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냈던 초심을 기억하길 바란다.

/kdh@

오늘의 운세 3월 20일 (음 2월 1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마음이 편하다. 48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많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 60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들은 있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72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필요. 84년생 남의 스승처럼 아는 것이 많다.



37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 49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이나 신발에 신경 써 보자. 61년생 욕심을 부리면 일이 성사되기 힘들다. 73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주의. 85년생 자연과 함께 살고픈 마음.



38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50년생 꽃 피고 새가 울기 시작했으니 행동할 때이다. 62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니 충진이 필요. 74년생 소지품 관리는 내가 살피야. 86년생 소극적인 성격은 평생 못 고친다.



39년생 믿은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51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는 법. 63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금심을 건어간다. 75년생 가끔은 내용보다 포장이 중요하니 외모에도 신경 쓰자. 87년생 아무도 못한 큰일을 해낸다.



40년생 만사가 귀찮고 심드렁한 날이다. 52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64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니 늘 준비해라. 76년생 어여쁜 이성의 유혹이 있는 날이니 충심을 잡자. 88년생 홀로 남은 어머니가 아직도 건강.



41년생 어려운 일은 배우자와 상의. 53년생 지나친 자존감이 주변을 힘들게 하니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65년생 주식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77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에 기쁜 날. 89년생 명의로라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지는 못한다.



42년생 비운 뒤에 땅이 굳는다 했다. 54년생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느껴라. 66년생 집을 나간 말이 가족을 일곱 돌아온다. 78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을. 90년생 어머니는 여러 자녀 중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43년생 건강과 먹는 것에 유의해야 하는 날. 55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기쁘게 할 것이다. 67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 79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를 덮어주면 큰 보답을 받는다. 91년생 가족끼리 각고의 노력 끝에 집이 생겼다.



44년생 나라 밖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56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한다. 68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스스로 노력. 80년생 나무꾼과 선녀 같은 인연이. 92년생 송사가 있다면 절에 가서 삼재기도를 해보라.



45년생 때가 아니면 시간을 갖고 기다려라. 57년생 손 없는 날을 잡아서 집수리를 시작. 69년생 물때가 왔으니 적극적으로 행동. 81년생 반려견 키우는 것은 사람 키우듯 돈과 사랑이 있어야만. 93년생 삶은 계속되고 아직 꿈꿀 시간은 많다.



46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첫 실행을. 58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려 온다. 70년생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일을 잘 풀리게 한다. 82년생 물속깊이는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94년생 친구의 초대로 하루가 행복하다.



47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실망하지 마라. 59년생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가보라. 71년생 의사 표현이 중요. 83년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음이니 조금 참고 기다려라. 95년생 결혼과 투자에 달콤한 바람이 불어와도 혹하지 말 것.



# 김상회의 四季

고수(高手)는 아무나 되나

고수(高手)는 수가 높은 사람을 뜻한다. 얼마 전 기사에서 '바둑의 신'이라 불리는 신진서 기사가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바둑 최강전 최종국에서 중국 랭킹 1위를 꺾고 한국 우승을 확정지었다는 낭보를 보았다. 바둑에 어느 일간지 제1면에 실린 헤드라인과 기사를 보고는 필자는 마치 바둑이 최고 취미였던 낭 눈도 떼지 않고 읽어 내려갔다. 5일 연속이라는 숨 막히는 대국 일정에서 초반부터 앞서나가는 했는데 그만 신진서는 실수했다. 생방송을 지켜보는 이들은 "아!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안공지능도 예측 98.5%로 신진서가 진다고 나왔었다니 그 탄식은 그야말로 자괴감의 탄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뒤집고 우승을 이뤘다. 패배 예측에서 역전을 이룬 것이다. 이럴 때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려야 마땅하다. 그러니 바둑의 신이라는 별칭을 얻은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신진서라는 고수는 2000년 경진생庚辰生이다. 12세에 입단한 밀레니엄 청춘이자 고수를 뛰어넘어 바둑의 신에 등극한 것이다. 소년 급제를 부러워 말라는 것이 역학계 운기의 기본 공식이다. 돌부처라는 별칭을 지닌 이창호 고수도 세계 최연소 종합기전 우승을 차지한 때가 16세이며 역전의 승부사 이세돌 9단도 프로 바둑계 입단 나이가 12세였다 하니 바둑의 세계는 참으로 소년 고수가 공식인 것만 같다. 역학계는 어떠한가. 역학계에도 나름의 고수라 불릴 만한 인물들이 적잖다. 역학의 고수는 뇌 에너지가 최대 효율이 있어야 하는 수(數)싸움 즉 소년 급제라 불릴 만한 청춘 고수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명리학은 통변의 묘학(妙學)이기도 하여 마음이 사물의 변화와 조화를 꿰뚫는 능력도 필요하여 경험치를 요하는 세월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타 분야도 그러하겠지만 고수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4	3		6	8
7				9		
	5		1			4
8				9	5	
	7	5				2
4			3		8	
		6				7
3	2		6	7	1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7	1	8	2	9	5	3	4
2	8	9	6	7	9	8	1	
9	8	9	1	2	2	6	7	
2	1	8	7	9	9	2	6	
2	8	7	2	8	1	2	9	5
9	9	2	6	2	2	1	7	8
7	2	2	2	1	6	8	9	9
1	2	6	9	9	8	7	2	2
8	9	5	2	7	2	6	1	2

7	2	9	1	9	2	8	6	2
2	8	6	2	7	2	9	1	9
2	1	9	6	8	9	2	7	2
1	9	2	2	2	8	6	9	7
8	6	2	9	9	7	2	2	1
9	7	2	2	6	1	9	8	2
9	9	1	8	2	2	7	2	6
6	2	7	2	1	9	2	2	8
2	2	8	7	2	6	1	9	5